

한글 정보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주)한글과컴퓨터 강태진

한글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주문용 소프트웨어와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다. 주문용은 말 그대로 사용자 개개인의 주문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미리 제작해 두었다가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형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는 주문 제작이 주종을 이루는데 반해 개인용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는 패키지 형태가 많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대수와 업무에서의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수요 또한 급신장하고 있다. 한번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히트'를 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많은 개발자를 유혹하고 있고 다음의 히트 상품을 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세계의 정보산업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리더로 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적 소유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나라의 경우 불과 4, 5년 전만 해도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이라는 것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계약에 의해 개발을 하고 돈을 받는 주문용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한번 개발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하면서도 수입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개발자의 예상과는 달리 사용자들이 상품을 외면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쓸 만한 소프트웨어이건 아니건 간에 구입을 하지 않고 배껴 쓰는 것이 관행이었으니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기는커녕 개발비조차 회수하기 힘들었던 것이 우리의 실정이었다. 그러던 우리 나라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이 지난 3, 4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했다. 1990년만 해도 그 규모가 너무 미미해 집계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 1991년에는 157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1992년에는 1717억 원, 1993년에는 2613억 원, 그리고 1994년에는 3366억 원의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이러한 급성장의 가장 큰 요인은 소비자들의 지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동안 한국정보산업연합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이 지적 소유권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해 왔으나 소비자들의 인식 변환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역시 1991년 초에 있었던 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BSA는 미국의 대규모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단체로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를 감시하고 정품 사용을 유도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데 이 단체가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온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포문을 연 것이었다. BSA는 비교적 작은 기업을 제소함으로써 주 고객이 될 대기업들을 직접 자극하지는 않으면서 경고하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했다. 이 전략에 힘을 입어 볼랜드나 로터스 등 미국 굴지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매출이 몇 배로 증가했고 전체 수입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1049억 원으로 1990년에 비해 48%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1993년에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을 우려한 정부가 검찰을 내세워 대대적인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인 덕분에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은 1992년에 비해 52.2%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28.8%로 1993년보다는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러한 3000억 원대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글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한글의 특성을 살린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각축장인 워드프로세서 시장은 180억 원 규모였는데 이 중 한글을 포함한 국내에서 개발된 워드프로세서들이 시장의 78%를 차지함으로써 이 분야만은 아직 외국 소프트웨어들이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 외에도 한글 율곽

선 글꼴이나 문자 인식 소프트웨어 등이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고 있기는 하나 매출 규모는 아직 미미한 형편이다.

위기에 처한 한글 정보 산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우리 나라의 정보 산업은 컴퓨터의 사용이 더욱 보편화되면서 계속 성장 곡선을 그릴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글 정보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같이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국내 개발자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시장도 커지고 개발자들의 기술 수준도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정보 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확신하기 힘든 이유는 소프트웨어의 운영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까지 우리 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호해 주던 “한글화” 장벽이 윈도우 운영체제의 등장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영문 윈도우용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들 중 상당수는 특별한 한글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도 한글 윈도우에서 작동시켰을 때 한글 지원을 한다. 물론 한글 지원이 한글 전용 소프트웨어만큼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워드프로세서 같이 한글 입력을 집중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그런 대로 쓸 만하다. 그러나 이런 불완전한 한글 지원 문제도 앞으로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들이 나오면 말끔히 해결 될 것이다.

유니코드

유니코드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미국 굴지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힘을 합쳐 세계의 모든 문자를 하나의 부호 체계로 지원하게끔 한 업계 표준이다. 2 바이트 코드로 세계의 어느 문자든지 나타낼 수 있게 해 주는 유니코드를 운영체제들이 지원하게 되면 그 운영체제 하에서 돌아가는 모든 소프트웨어들도 손쉽게 여러 나라의 문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마다 각 나라용 판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세계 굴지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유니코드 컨소시엄에 가입해 이 코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니코드 진영은 1991년에 비슷한 작업을 진행 중이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문자 코드 전문 위원회를 장악하는데 성공을 해 1992년 발표된 국제 문자 표준인 ISO 10646을 유니코드와 동일한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10646의 첫 번째 판에는 11172자의 현대 한글 중 4516자가 빠진데다 순서도 뒤죽박죽이 되어서 들어가 있다. 1992년 여름 서울에서 있었던 ISO 문자 코드 전문 위원회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은 한글 11172자를 모두 국제 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때까지 국내 표준도 2350자만을 지원하고 있었고 전체 코드 영역의 4분의 1을 우리에게 내 주기 싫어 하는 중국 일본 등의 반대로 어중간한 절충안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ISO가 작년부턴 10646의 개정 작업에 들어가며 우리 나라의 문자 코드 전문 위원회는 다시 한번 하나의 영역에 모든 한글을 가나다라 순으로 배열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ISO의 문자 코드 전문 위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니코드 진영을 상대로 로비를 시작했고 마침 윈도우95와 윈도우NT에서의 한글 지원 문제로 고심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국내 문자 코드 전문 위원회의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 노력이 열매를 맺어 1995년 3월 미국의 실리콘벨리에서 열렸던 유니코드 기술 위원회에서 우리 안이 통과됐다. 이어서 1995년 4월 제네바에서 있었던 ISO의 문자 코드 전문 위원회 실무자 회의에서도 중국 등의 거센 반대가 있었으나 유니코드 진영의 도움으로 우리 안이 10646의 정식 개정안으로 채택되었다. 이 개정안은 다시 지난 8월에 마감되었던 서면 투표에서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회원국의 찬성을 얻어 최종 확정되었다.

현재 유니코드는 4만 여자의 문자를 코드 영역에 할당하고 있는데 그 중의 4분의 1이 한글인 한글 중심적 국제 표준 부호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주)한글과컴퓨터는 유니코드와 ISO 10646에

한글이 제대로 들어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미국 밖의 회사로는 처음으로 유니코드 컨소시엄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을 했고 국내 문자 코드 전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갔다. 문자 코드 전문 위원회에서 (주)한글과컴퓨터와 다른 국내 전문가들이 한글의 사전순 배열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아마 유니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 윈도우95용으로 발표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철회하고 만 "확장완성형(통합형)" 코드와 비슷한 모양을 가졌을 것이다. (주)한글과컴퓨터는 완벽한 한글 지원이라는 자사 제품의 독점적인 위치를 위협 할 수 있는 유니코드의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만들지 않는 한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윈도우 등의 운영체제에서 한글이 제대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단기적으로는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목적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잘못된 부호 체계 때문에 앞으로 계속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분야의 선구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 한 것이다.

유니코드 시대에서의 한글 정보화 산업

앞으로 2, 3년 후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운영체제가 일반화되면 소프트웨어의 한글화는 사용 설명서나 메뉴 정도를 한글로 고쳐 주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 될 것이다. 단순히 한글을 잘 입력하고 출력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제품의 차별화가 불가능 해 지는 것이다. 보다 한국적인 기능을 개발하고 지원해야만 막강한 개발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고 우리 시장을 공략하는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쯤 되면 한글 철자법 교정기는 운영체제의 한 부분이 되어 더 이상 개별 제품의 차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나 문법 교정기 등이 워드프로세서 등에 포함되어 사용자의 잘못된 글쓰기 습관을 고쳐 주게 될 것이다. 워드프로세서에 포함이 되던 앓던 각종 사전, 다양한 서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이고 한국어의 특성을 활용한 정보 검색 엔진은 컴퓨터 사용자의 필수품이 될 것이다. 후처리 기능의 개선으로 인식률이 지금 보다 훨씬 향상된 문자 인식 시스템도 사무 환경의 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글 처리 기능들이 주로 우리의 연구진에 의해 개발될 것임에 반해 한글 처리 기술을 놓고 외국 회사간의 전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같은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운영체제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처럼 현대 한글 11172자만 지원하는 것과 애플의 운영체제처럼 240자모의 열린 조합을 통해 옛글자 까지 지원하는 것과의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워드프로세서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저스트 시스템의 이찌다로가 윈도우의 등장과 함께 한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등의 외국 제품에게 왕좌를 내 줄 듯 보이기도 했으나 고유의 한자 자동 변환 프로그램에 힘입어 훌륭히 시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윈도우의 확산과 함께 외국 제품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시장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은 중국의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한자 입력 프로그램이나 서체 등의 요소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탑재해 판매해서 얻는 단기적인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의 주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유니코드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한글 정보화 산업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일본처럼 될 수도 있고 중국처럼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워드프로세서 같이 우리의 문자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제품의 주인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글 정보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